

2025. 1. 13



경제脈

미국 12월 고용: 노동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나?

▲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02. 6454-4891

seunghoon.lee@meritz.co.kr

- ✓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25.6만 명), 실업률(4.09%) 서프라이즈
- ✓ 노동시장이 호황일 때 관찰되는 모든 특징들이 나타남
- ✓ 임금상승률에 선행하는 구인/실업자 비율은 12월 1.15배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 ✓ 이런 그림이 계속 이어지면 올해 하반기 내내 임금발 인플레이 재현 위험 부각

미국 '24.12월 고용: 10점 만점에 10점. 모든 것이 좋았다

미국 '24.12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무려 25.6만 명이나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16.5만)을 크게 상회한 반면, 실업률은 4.09%로 하락, 시장 기대를 밑돌았다. 12월 고용에서는 1) 노동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레저/여가, 정부 부문)에 노동공급이 확충되었고, 2)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단시간 내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3) 나쁜 실업은 줄고(계약만료, 실직) 좋은 실업은 늘어남(자발적 이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었다. 노동시장이 호황일 때 관찰되는 모든 특징들이 나타났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핵심은 노동수급의 추가 개선 여부: 추가 개선시 하반기 임금상승률 둔화 어려워

발표되는 노동시장 지표 중 임금이 가장 후행한다. 따라서 12월 임금상승률 둔화는 2022년 이후 점진적 노동시장 냉각(정상화)의 산물이다. 구인건수/실업자수 비율이 작년 9월까지 추세적으로 내려 왔음을 고려한다면 8~9개월 시차를 두고 올해 4~5월까지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작년 9월 허리케인 때문에 동 비율이 1.07배까지 언더슈팅한 이후, 11월까지 연속 상승(1.14배)했으며, 12월 실업자감소로 1.15배까지 추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은 올해 6~9월 임금상승 압력의 부각과 함께 2.5% 내외 수준에서 Core PCE 물가상승률이 횡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노동수급이 12월 호전에 그치지 않고 계속 타이트해 지면 하반기 내내 "임금 상승세 확대-서비스 물가 압력 자극 경로"가 다시 작동하며 연준이 긴축을 풀기 어려워 질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위험을 주목하면서, 선물시장은 다음 금리인하 시점으로 9월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전술한 경로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주시할 것이다. 다만, '25.1월 고용 동향부터 사업체 노동력 조사(비농업 고용 등) 관련 모든 시계열이 조정되어 새로운 통계로 노동시장을 판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연준 전망은 노동시장이 계속 정상화되며 올해 8월 전후 구인/실업자 비율이 1배를 하회함을 전제로 한다.

연준 정책 시사점: 1월 FOMC는 매파적일 것임. 다음 인하는 6월 예상 (유지)

연준의 경우, 당장 1월 FOMC는 매파적이겠지만, PCE 물가로 산정한 인플레이션율이 몇 달 추세적으로 둔화되어야 인하 기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우리는 다음 인하 시점을 6월로 예상하고 있다. 기대 이상으로 높아진 시중금리의 부작용은 하반기 들어 국채/회사채 rollover 리스크나 소비자신용의 취약성을 되려 가중시킬 수 있다. 하반기 중 느린 속도로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된다면, 연준이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6월 이후 연내 75bp 인하를 한다는 전망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이다.

12월 비농업 취업자수: 전월대비 25.6만 명 증가하며 컨센서스 크게 상회

12월 비농업 취업자수 +25.6만
컨센서스 상단에 거의 부합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5.6만 명 증가하며 컨센서스(16.5만 명)의 상단(26.8만)에 거의 수렴하였다. 10~11월 합산 실적치가 속보치 대비 8천 명 하향 조정된 것은 대세에 지장이 없었다.

제조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
걸쳐 고른 고용 증가 시현

기준에 고용증가를 주도하던 헬스케어/사회서비스(+7.0만), 레저/여가(+4.3만), 정부(+3.3만) 부문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 서비스(+2.8만, 엔지니어링, 일반 건물관리, 일용직 동반 증가), 금융(+1.3만), 정보기술(+1.0만) 등 업종도 힘을 보탰다. 도소매업 고용이 전월대비 4만 명 늘어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크다. 11월 동 업종의 물리적인 고용감소가 부재했으나 계절조정 요인에 따른 일부 왜곡이 있었고, 12월에는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연말 소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헬스케어, 사회서비스, 레저/여가,
정부 고용 쏠림 있으나 이곳이
바로 노동수요가 존재하는 영역들

취업자수의 전월대비 증분 기준으로 보면, 기존 3개 업종에의 쏠림이 지난 6개월 내에 가장 덜한 달로 볼 수 있다(3개 업종 +14.5만, 기타 업종 +11.0만). 그러나 취업자수 내의 비중으로 보면 3개 업종 의존도는 12월 39.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 2월 코로나 직전 당시의 비중이 이 수준이었고, 노동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의 취업자수가 효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면 그만이다.

표1 2023년 12월 이후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천명, MoM)	월별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20.2월 대비	
	'23.1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4.10	'24.11	'24.12	(천명)	(%)
비농업 취업자수	290	256	236	310	108	216	118	144	78	255	43	212	256	7227	4.7
민간	214	196	181	232	108	206	97	99	37	222	9	182	223	6578	5.1
정부	76	60	55	78	0	10	21	45	41	33	34	30	33	649	2.8
제조업	12	6	-9	-6	7	3	-16	6	-26	-12	-52	25	-13	93	0.7
건설업	18	26	24	37	-5	13	18	14	28	26	-1	8	8	701	9.2
도소매	40	10	20	29	21	7	-14	2	-8	10	16	-26	40	467	2.2
운수창고,유틸리티	-16	-2	34	4	21	27	12	-1	11	10	-11	3	9	895	14.2
정보기술	13	8	-3	2	-3	-1	0	-16	-8	1	-2	4	10	97	3.3
금융	6	-4	-7	4	-3	12	13	-4	7	6	5	11	13	413	4.7
사업서비스	13	48	6	17	-17	55	-11	-4	-47	22	-10	9	28	1541	7.2
일용 서비스	-21	8	-16	-1	-24	14	-30	-19	-23	5	-29	6	5	-210	-7.3
민간교육	8	27	-9	-4	0	-5	14	3	12	9	4	7	11	113	3.0
헬스케어*	76	73	89	80	98	73	69	64	55	81	70	80	70	2111	10.2
레저/여가	41	-3	26	54	-9	18	4	38	9	61	-8	52	43	202	1.2
숙박	14	-1	-2	1	-1	-3	-6	5	5	8	0	7	6	-175	-8.3
외식	6	-21	25	30	-7	17	-2	30	2	48	-1	23	30	174	1.4
기타서비스	0	10	10	12	4	7	8	-3	4	6	-3	8	8	-6	-0.1

주: * 사회서비스 (social assistance)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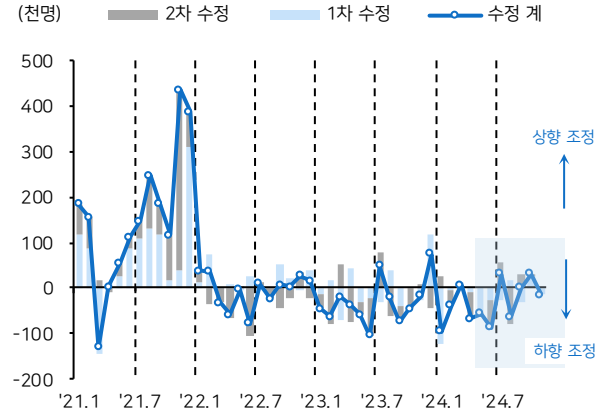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미국 10~11월 비농업 취업자 증분 조정

(천명, MoM)	New		Old		Diff (천명)		계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비농업 취업자수	43	212	36	227	7	-15	-8
민간	9	182	-2	194	11	-12	-1
정부	34	30	38	33	-4	-3	-7
정부교육	7	13	14	17	-8	-4	-12
제조업	-52	25	-48	22	-4	3	-1
건설업	-1	8	2	10	-3	-2	-5
도소매	16	-26	0	-26	16	1	16
운수창고,유틸리티	-11	3	-5	3	-6	-1	-7
정보기술	-2	4	-6	0	4	4	8
금융	5	11	6	17	-1	-6	-7
사업서비스	-10	9	-23	26	13	-17	-4
일용 서비스	-29	6	-33	2	4	5	9
민간교육	4	7	3	7	1	0	1
헬스케어	70	80	64	72	6	7	13
레저/여가	-8	52	2	53	-10	-1	-11
기타서비스	-3	8	0	8	-3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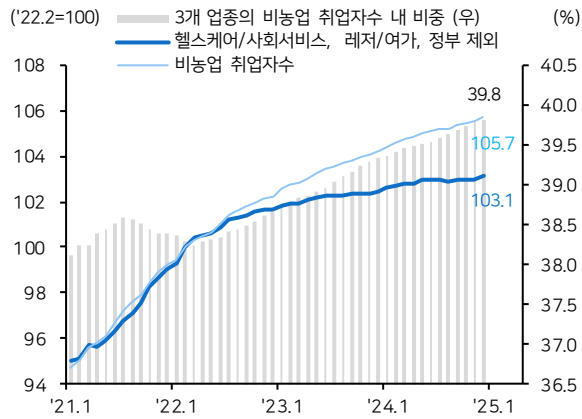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2021년 이후 월간 비농업 취업자수 수정 방향 및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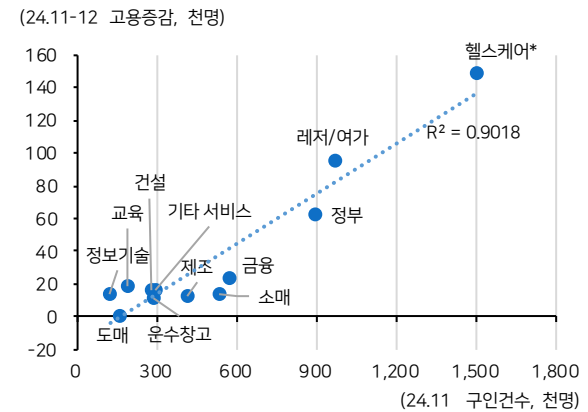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비농업 고용: 헬스케어, 레저/여가, 정부 포함 및 제외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업종별 구인건수(11월)과 고용증감(11~12월) 비교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업률과 가계조사: 노동시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실업률 하락의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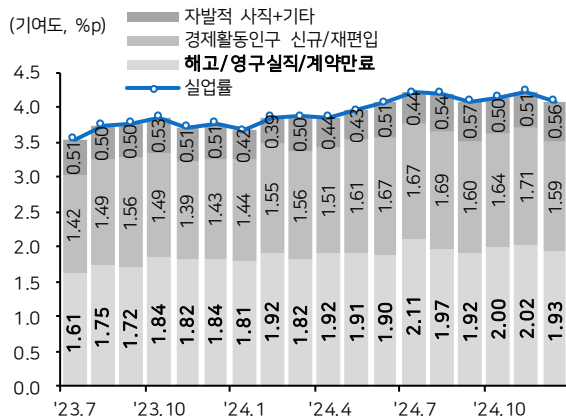
나쁜 실업은 줄고
좋은 실업은 늘었음

12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4.09%로 과거 시계열이 보정된 11월 실업률(4.23%) 대비 14bp 하락했다. 실업상태별 기여도를 보면, 11월 대비 1) "나쁜 실업"에 해당하는 해고/영구실직/계약만료 기여도 9bp 하락, 2) 경제활동인구 신규/재편입 기여도 12bp 하락, 3) 자발적 사직에 따른 기여도 5bp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아 실업률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지만, 과거부터 계속 이와 다른 요인이 주도하여 실업률이 등락하고 있다. 12월도 예외는 아니다.

- 특징 1) 인력 감원 제한적
2) 구직자가 신속히 취업에 성공
3) 자발적 이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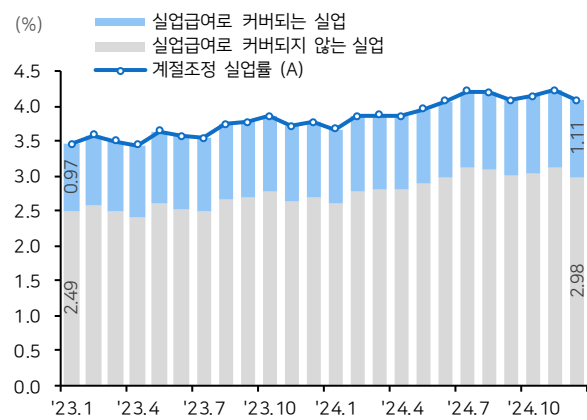
12월의 특징을 해석하자면 1) 인력 감원 조짐(일용직 포함)이 제한적이었고, 2) 12월에는 구직활동이 곧바로 취업 성공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3) 노동수요가 개선되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2)의 경우 아래 그림 6~7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서 취업자 상태로 신분 전환이 바뀐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 상태로 바뀐 수는 줄었다. 노동시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4 미국 실업상태별 실업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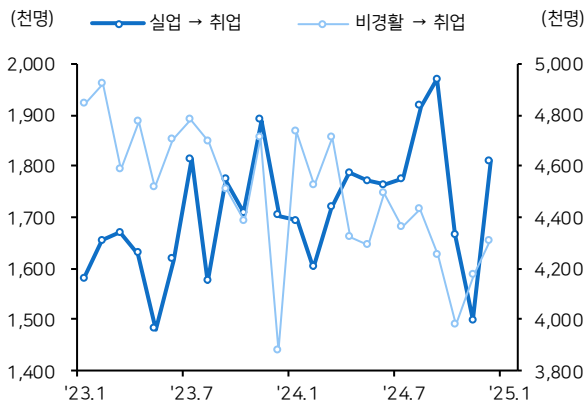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미국 실업률: 실업급여로 커버되는 실업과 아닌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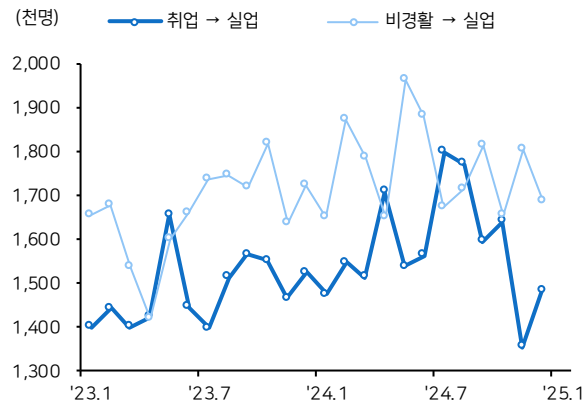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경제활동인구 flow: 실업 → 취업, 비경활 → 취업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경제활동인구 flow: 취업 → 실업, 비경활 → 실업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젊은 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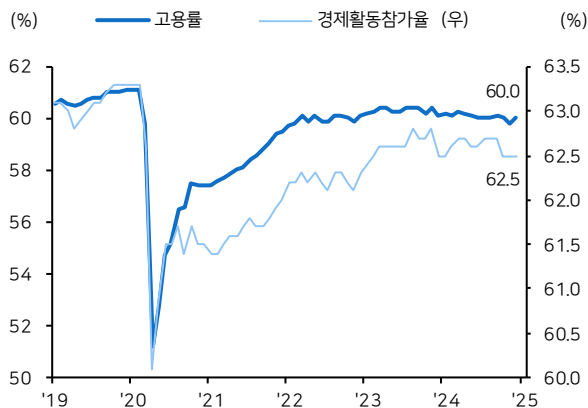
가계조사 노동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실업률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다. Prime-age(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24년 8월 83.9%를 정점으로 4개월째 계속 하락 중이다(12월 83.4%). 노령층 참가율 하락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10월 이후 62.5%에서 지지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연령별로 세분화해 보면 퍼즐을 풀어볼 수 있다. 최근 수 개월 간 16~34세 참가율은 오르고, 35~55세 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들 계층의 경우 단순히 경제활동참가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감소하며 취업자수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코로나19 이후 노동 공급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35~55세 계층이 이를 주도해 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학력과 무관한 서비스업 신입 채용 확대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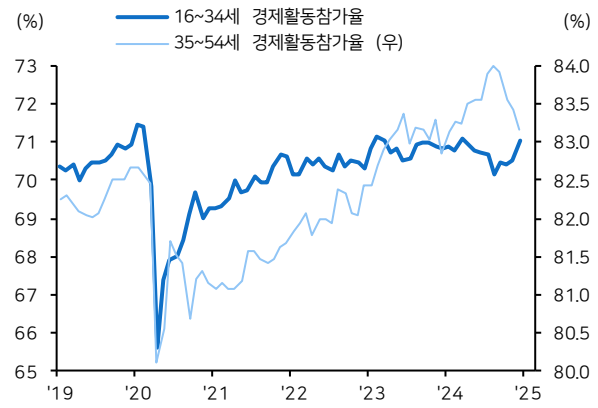
여기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최근까지도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 학력 수준과 무관한 신입(entry-level) 채용에 적극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플레이션에 뒤이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재무 부담을 느껴 취업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파트타임 일자리가 12월 들어서야 반등했음을 고려한다면, 지난 몇 개월 간의 흐름은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그림8 미국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6~34세 vs 35~55세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16~34세 취업자 (가계조사) 증가와 관련된 일부 통계 발췌

(백만명)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력별 (25세~)	고졸 이하	8.72	8.63	8.49	8.46	8.49	8.59	8.58	8.78	8.63	8.47	8.53	8.70
	고졸	34.42	34.93	34.86	34.75	34.79	34.72	34.99	35.29	34.74	34.44	34.38	34.38
	초대졸	34.99	35.11	34.87	34.94	34.51	34.37	34.43	34.37	34.65	34.50	34.37	34.41
	대졸	62.83	62.58	63.12	63.07	63.62	63.78	63.72	63.66	63.96	64.28	64.15	64.08
파트타임	자발적 이유	22.18	22.32	22.87	22.24	22.63	22.32	22.05	22.56	22.55	22.35	22.38	22.51
연령별 고용	16~19세	5.71	5.62	5.86	5.83	5.86	5.73	5.57	5.39	5.62	5.45	5.56	5.79
	20~24세	14.54	14.18	14.27	14.40	13.93	14.04	14.08	13.93	14.08	14.21	14.14	14.28
	25~34세	35.70	35.67	35.66	35.63	35.69	35.64	35.56	35.49	35.57	35.52	35.46	35.56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임금 상승률 둔화는
과거 노동시장 정상화의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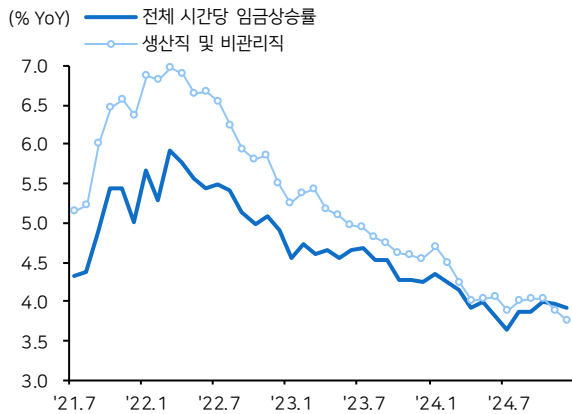
올해 4~5월까지의 추세적인
임금상승률 둔화 연장될 것

임금: 노동수급의 함수. 올해 1분기까지는 상승률 둔화될 것이나 문제는 그 이후

12월 전체 민간부문과 생산직/비관리직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전월대비 0.28%와 0.20% 상승, 10월 이후 상승폭을 점차 줄이고 있다. 전년대비 기준 임금 상승률은 전체와 생산직 각각 3.93%와 3.76%로 내려 왔다(11월 3.97%와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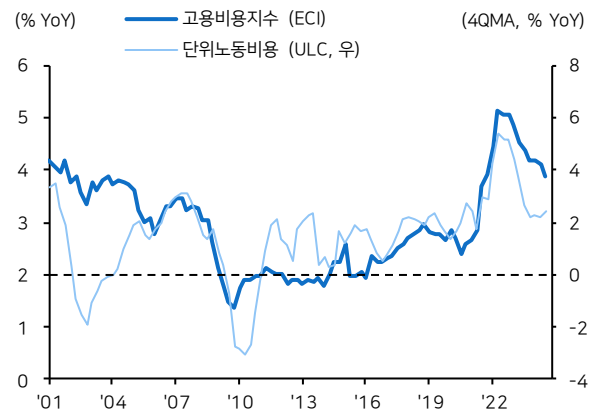
우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임금 상승률 둔화가 2022년 이후 노동시장의 점진적 정상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주요 노동시장 지표 중에서 임금 상승률은 가장 후행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사직률이나 구인건수/실업자수 배율에 8~9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2024년 9월까지 구인건수/실업자수 배율이 줄곧 계속 내려왔음을 고려할 경우, **시간당 평균임금이나 패널 데이터 성격의 Wage Growth Tracker 상승률이 올해 4~5월까지의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해당 월의 교란 요인, 예를 들어 자연재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시간당 임금에는 반영).

그림10 미국 시간당 임금상승률: 전체 vs 생산직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미국 고용비용지수와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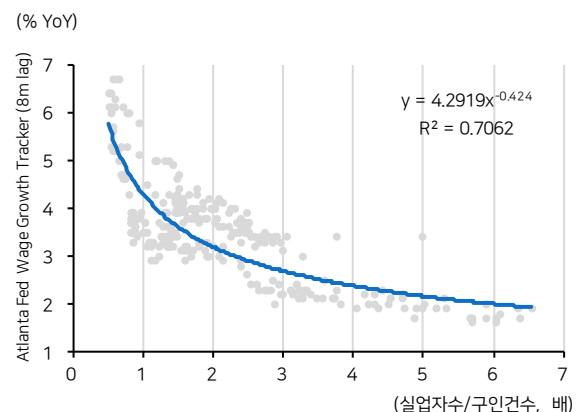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미국 구인건수/실업자수 배율과 임금 상승률 (1)



자료: US BLS, Atlanta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미국 구인건수/실업자수 배율과 임금 상승률 (2)



자료: US BLS, Atlanta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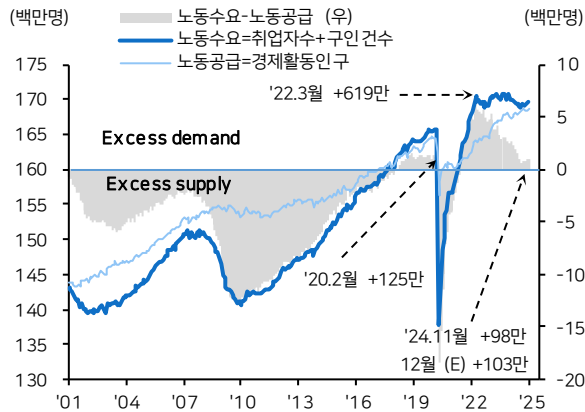
문제는 노동시장 호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6월 이후일 것

문제는 그 이후일 수 있다. 지난 9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구인건수/실업자수 비율이 1.07배까지 언더슈팅한 이후, 10~11월 연속 상승(11월 1.14배) 했으며, Indeed.com Job Posting Index 추세를 BLS 구인건수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12월 실업자 감소로 동 비율은 1.15배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향후 6개월 내 채용을 더 할 것이라는 응답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감안, 올해 6~9월 임금 상승 압력이 부상하면서 Core PCE 물가 상승률 둔화를 지연시킬 위험을 지적한 바 있었다(1.9일 전략공감2.0, "미 인플레이션 점검: 의외의 변수는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지 않고 계속 뜨거워지면 물가에도 영향 미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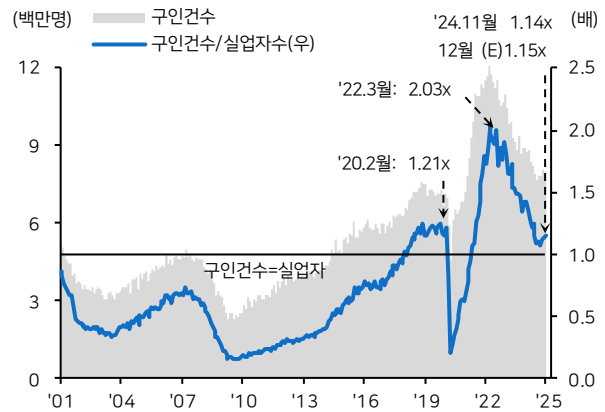
노동시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구매력이 보전되어 민간소비 중심의 경기호황이 이어진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다. 올해 성장률도 2%대 안착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노동시장 과열 지속-임금 상승세 지속-경직적 서비스 물가상승이라는 환경이 고착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주된 정책결정 변수가 되어버린 연준이 긴축 기조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에 있다.

그림14 미국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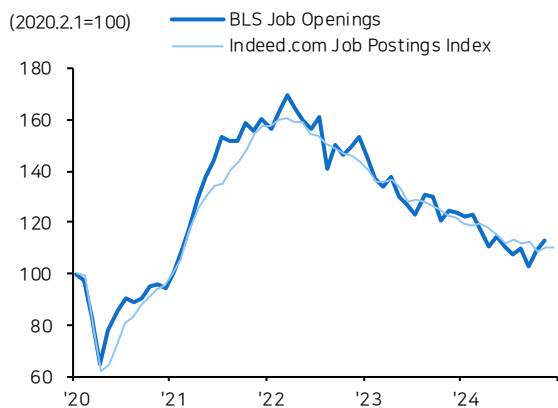
자료: Regional Fed Survey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미국 구인건수와 실업자수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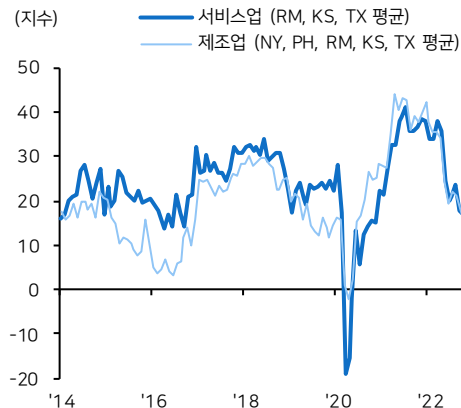
자료: US BLS, Indeed.co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구인건수: 노동통계국 vs Indeed.com



자료: US BLS, Indeed.co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지역 연은 서베이: 향후 6개월 고용전망



자료: Regional Fed Survey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연준 정책 시사점: 1월 FOMC는 매파적일 것. 6월까지 인하 기대하기 어려워

12월 고용의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미국의 12월 노동시장은 1) 노동수요가 있는 곳에 노동공급(취업자 증가)이 있었고, 2)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실업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업자 지위를 얻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3) 실업률 자체가 내려왔을 뿐 아니라 좋은 실업의 성격이 부상했고, 4) 당장의 임금 상승률 둔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이 양호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관찰되었던 통계였다. 10점 만점에 10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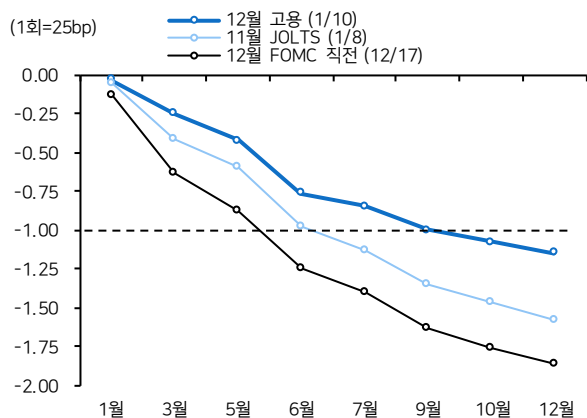
금융시장은 노동시장 과열 재개를
우려; 다음 인하 시점으로 9월을
pricing 중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이 점진적 냉각에서 과열로 회귀할 위험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이 9월 바닥을 통과했다는 사실 만으로 일단 올해 2~3분기 임금 상승률을 지지 시킬 것이다. 그리고 12월에 본 것처럼 노동수요 우위가 더 길어진다면 하반기 내내 경직적 임금-서비스 물가상승세 조합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도 이러한 위험을 계속 주시할 것이나, 12월 한 달간의 흐름으로 과열 재개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2월 7일 발표되는 '25년 1월 고용동향부터는 벤치마크 변경(QCEW)에 기반한 2024년 초 취업자수 레벨의 하향 조정(70만 명 내외 예상)이 반영된 수정된 시계열을 통해 노동시장 흐름을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의 기본 전제는 노동시장이 점진적 정상화를 올해 중에 이어가서, 8월 전후 구인/실업자 비율이 1배를 하회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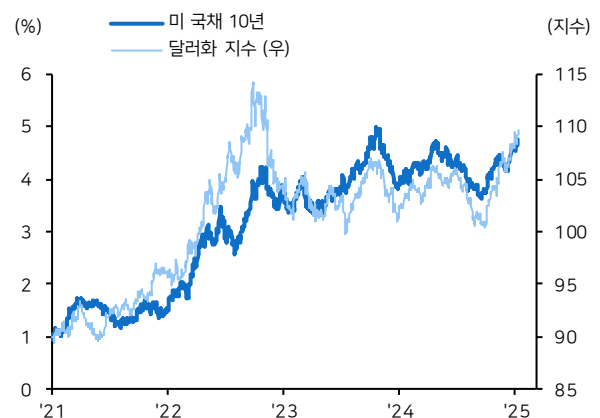
그러나 적어도 선물시장 참여자들은 당장부터 노동시장 과열의 장기화 위험을 우려하는 것 같다. 12월 고용 발표 직후로는 다음 연준의 인하가 6월이 아닌 9월일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국채 금리 상승(증가 4.76%)과 달러화 강세(109.65)가 동반되고 있다.

그림18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방기금금리 궤적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미 국채 10년 수익률과 달러화 지수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시장의 보수적인 연준 전망에는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도 일조

한편, 시장의 보수적인 연준 전망에 불을 붙인 또 다른 요인은 같은 날 발표된 1월 미시건대 소비자동향조사 속보치였다. 동 조사에서는 향후 1년과 5~10년 기대인플레이션이 공히 3.3%로 크게 올랐고, 특히 후자는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였다. 전망의 불확실성(상위 75%에서 상위 25% 값을 차감)도 크고, 지지정당(공화 vs 민주)에 따른 응답도 천차만별이지만, 원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중장기 인플레이션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연준 정책이 신중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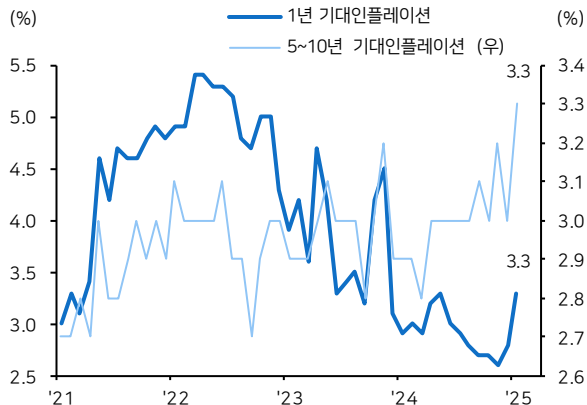
1월 FOMC는 hawkish할 것
디스인플레이 추세 재개되어 몇 달
진행되기 전까지는 인하 재개를
논하기 어려울 것

1월 FOMC에서는 연방기금금리가 4.50%에서 동결될 것이며, 12월 Core CPI 상승률이 11월과 동일한 3.3%에 머물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도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PCE 물가 기준 디스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추세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연준이 인하를 재개한다고 보기 어렵겠다.

당사의 baseline은 연준이
6월에 인하 재개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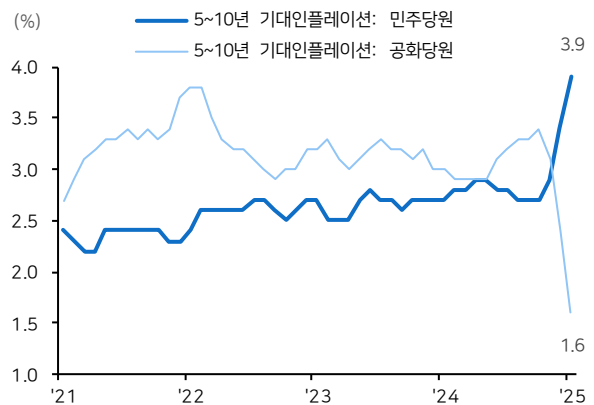
우리는 6월에 가서야 연준이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중 느린 속도의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하에서 기대 이상의 고금리 부작용이 금융안정 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연준 정책에 대한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내 75bp 인하이다.

그림20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1년 vs 5~10sus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미시건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민주당원 vs 공화당원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